*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?
	+ **인간 존엄성/존중이 없다(소수자혐오/남아선호사상/남성우월주의/곳곳에스며든 군대문화/강요하는사회)**
		- 왜 문제인가?
			* 사이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혐오가 진행되고 있다. 서로 싸우는 것만으로 가는 것 같다.
			* 싸우는 것은 좋은데, 분노의 화살이 위가 아닌 아래로 간다
			* 답이 없는 싸움. 들을 자세가 없다.
			* 분명히 가야할 지점은 있다. 세세하게 인식 못 하는 혐오가 있다. 우리가 생각치도 못하는 일들이 많다. 예술 교육부터 타인의 관점을 배우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. 타인의 관점.
			*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
		- 무엇을 바꿔야 하나
			* 자본주의라는 말이 돈이 우선인 세상을 말하고 있다. 자본(화폐)는 시장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자본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있다.
			* 군사 주의 문화. 이는 찍어누르는 방식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. 갑과을이 되어 있는 세상. 평등한 관계가 사라져 있다.
	+ **교육 시스템(누구를 양성했는가?)**
		- **왜 문제인가?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?**
			*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전체주의 지향함. 개인의 삶보다
			* IMF이후로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의 부품을 만들어간다. 에듀케이션의 어원이 자기에 대한 성찰을 끄집어 내는 것이다.
			* IMF전에도 국가의 시스템을 잘 굴러가기 위한 양성이다
			* 어떻게 사는지 가르치느냐?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다. 그래서 요즘 대안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. 내가 어떻게 사는지 가르치는. 거기에는 교육자 개혁도 필요하다
	+ 경제의 문제(신자유주의/물질만능주의/근대화속성/재벌/돈벌이경제학)
		- 왜 문제인가?
			*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 구조. 거기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재벌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. 지금 가장 강력한 시스템. 지금 그것을 어떻게 깨야 할 것인가?
			* 신 자유주의.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이 왜곡된 세상이다. 자유가 돈에만 묶여있다. 돈이 자유를 대변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. 많은 것이 꼬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.
			* 돈은 물물교환의 수단인데, 재화. 가치가 되어버리고 있다.
			* 원래는 돈으로 살 수 없던 것들 사랑, 규칙 등. 요즘에는 새치기도 돈을 주면 대신 줄을 서주고 그런다.
			* 경제가 계속 변하다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는데. 돈이 제일 중요하고, 재화처럼 설명이 되고, 폐단이 나타나는데.
		- 무엇을 바꿔야 하나?
			* 돈벌이 경제학과 살림살이 경제학으로 바꿔야 한다. 결국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이지.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			* 화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. 전에도 말했듯이 화폐는 물물교환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.
			* 재벌공화국을 없애야 한다.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이고, 그로 인해서
	+ 헌법/국회의원/검찰(법 집행자들)
		- 왜 문제인가?
			*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, 약속한 것도 아니다. 또한 헌법에 대해 교육 받은 것도 없다.
			* 국회의원들이 실태는 지금을 만든 사람들이다
			* 법은 국민들의 약속이다.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다
	+ 사회안전망의 부재
		-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 하고 있고, 자아성찰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에만 직시하고 있다. 그러다 보니 자본의 논리에 빠져들게 되고, 삶의 가치보다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가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.
* 우리가 그리는 세상
	+ 공존/종x,횡o/협동/평등한 기회,분배
		- 인간의 존엄성,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
	+ 소국과민/탐라독립/지방분권(기초자치)/직접민주주의/함께하는 시민사회
		-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망해가고 있다. 그렇다면 좀 더 국민들이 사회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
		- 이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, 관심사의 사람들이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.
	+ 살림살이경제학/돈이 없어도 죽지 않는 사회 / 돈 걱정없는사회
		- 화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. 다만,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. 원래 돈의 수단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.
	+ 통일